

한국어판 학생 프리젠티즘 척도(K-PSS)의 신뢰도와 타당도: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상일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Presenteeism Scale for Students(K-PSS):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Sangil Lee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학생 프리젠티즘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 대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총 7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학생 프리젠티즘 척도(K-PSS), 학업소진, 우울 및 불안 척도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K-PSS의 학업손상점수 문항(WIS)의 내적 신뢰도는 .84로 내적 일관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K-PSS의 학업손상점수(WIS), 학업성과점수(WOS), 학업결손시간(HA)은 준거 변인인 학업소진, 우울, 상태 및 특성불안점수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확인한 학업손상점수 문항(WIS)의 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나타났다($\chi^2=25.253$, $DF=20$, $CMIN/DF=2.267$, $RMSEA=.043$, $CFI=.988$, $TLI=.974$). 마지막으로, K-PSS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를 성별, 연령별, 학년별로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반복했을 때도 모든 비교 조건에서 적합도 지수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K-PSS는 대학생들의 다양한 상태에 따라 안정적으로 프리젠티즘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confirm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resenteeism Scale for Students (K-PSS) and to verify its stability according to student characteristics. 700 university students were surveyed using the academic burnout, depression, and anxiety scales of the K-PSS. Results showed; 1) The internal reliability of the WIS of the K-PSS was .84, confirming internal consistency; 2) Work Impairment Score (WIS), Work Achievement Scores (WOSs), and Hours of Absenteeism (HA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cademic burnout, depression, state and trait anxiety scores; and 3) WIS fitness indices as determin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within the acceptable range ($\chi^2=25.253$, $DF=20$, $CMIN/DF=2.267$, $RMSEA=.043$, $CFI=.988$, $TLI=.974$). To confirm the stability of the K-PSS, model analysis was repeated by dividing subjects by gender, age, and grade; fitness indices were found to be within acceptable ranges of all comparisons. This study confirms that K-PSS could be used to measure presenteeism among university students.

Keywords : University Student, Presenteeism, K-PSS, Reliability, Validity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8052174)

*Corresponding Author : Sangil Lee(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mail: psychology.sangil@gmail.com

Received March 6, 2023

Revised April 4, 2023

Accepted May 12, 2023

Published May 31, 2023

1. 서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진학자의 비율)은 73.3%로 최근 10년 동안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1]. 대학 진학은 특별한 소수의 일이 아닌 다수의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청년세대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다양한 개입의 시작점으로 대학생 시기가 관심 받고 있다.

후기 청소년기이자 초기 성인기로 분류되는 대학생들은 입시경쟁을 거치고 대학에 진학했으나 대학 진학 후에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하며, 이 과정이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시기이지만[2], 동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자율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생활방식의 변화와 학업 및 진로,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3-5].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 관련 스트레스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넘어서 자살 경향성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되며[6,7], 신체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들에서 언급되어왔다[8-10]. Matsushita 등(2011)은 대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소진 또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생겨 대학 내 건강 서비스 기관에 방문하는 것을 프리젠티즘(presenteeism)이라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11].

프리젠티즘(presenteeism)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후반 건강과 생산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경제 용어로 소개되기 시작했다[12,13]. 프리젠티즘은 일반적으로 건강 문제가 있어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근함으로써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14-16]. 프리젠티즘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스트레스나 질병에 대해 스스로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인 개선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난다[17]. 또한 질환 수준이 아닌 컨디션의 난조로 인한 결근(혹은 부재)을 허용하지 않는 조직 및 사회적 풍토도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이나 조직, 사회적 풍토 등 다양한 차원의 원인이 프리젠티즘을 발생시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프리젠티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분명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해당 근로자 본인이 경미하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여 병원에 가거나 병가를 내는 대신 약국에서 간단히 약을 사먹

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18]. 둘째, 당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프리젠티즘보다 근로자의 결근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 관리자의 입장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집에서 쉬어야 할 정도의 건강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9].

“발현 성인기”라고 불릴 만큼 대학생 시기는 생애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다양한 스트레스들에 직면하게 되며, 사회로 진출하는 첫 관문인 취업이라는 성취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한다[20].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경쟁 스트레스에 노출되며[21],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22]. 이러한 점들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및 적응과 관련된 프리젠티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질병에 대한 초기 개입이라는 예방의학적 접근과 초기 단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추가적인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대학생의 프리젠티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중요해진다.

Matsushita 등(2011)은 위와 같은 필요성에 기반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프리젠티즘의 개념을 일본에서 학생들에게도 적용하고자 학생 프리젠티즘 측정도구 Presenteeism Scale for Students, PSS)를 개발했다[11]. 업무에 대한 내용을 학업으로 수정하여 적용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리젠티즘의 수준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23]. 이 연구는 국내 대학생들에게 프리젠티즘을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특수한 전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프리젠티즘의 수준과 삶의 질의 수준을 비교하였으나 실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살펴보지 않으며, 요인분석을 이용한 타당도 검증 및 대학생들의 성별, 연령, 학년 등에 따른 측정 안정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프리젠티즘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왔다[24-26]. 우울, 심리적 웰빙(well-being)과 같은 요인들이 프리젠티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7]. 그중에서

도 정신적 소진은 다양한 연구들에서 프리젠티즘과의 관련성이 강조되어 왔다. 프리젠티즘이 소진의 하위 차원들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며[28,29], 프리젠티즘의 발생은 심각한 수준의 소진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27]. 정리하면, 프리젠티즘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은 더 높은 우울감과 함께 소진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생산성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킨다[30,31] 이러한 결과들은 프리젠티즘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신적 소진과 같은 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프리젠티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티즘 수준을 측정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 한국어판 학생 프리젠티즘 척도(K-PSS)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프리젠티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정신적 소진, 우울 및 불안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은 측정 불변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을 성별, 연령, 학년 변인으로 구분해 본 척도의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한국어판 프리젠티즘 측정도구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본론

2.1 연구대상

지방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11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네 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은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한 후 접근 가능한 포털사이트 게시판

(<https://everytime.kr/>)을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의 시작에 연구 목적과 설문 내용,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설문 과정에서 참여 보상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를 제외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관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UNISTIRB-22-56-C).

연구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477명, 68.1%)이 남성(223명, 31.9%)보다 많았으며, 학위과정은 학부과정(639명, 91.3%)이 대부분이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과 4학년이 비교적 많았다. 평균 연령은 23.1세였으며 20~25세(505명, 72.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6~30세(89명, 12.7%)가 많았다.

2.2 연구도구

2.2.1 한국어판 학생 프리젠티즘 척도(K-PSS)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리젠티즘 측정 도구는 Matsushita 등(2011)이 개발한 학생 프리젠티즘 측정도구(Presenteeism Scale for Students; PSS)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한 것(K-PSS)을 사용하였다[23]. 도구 문항은 총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일차적 건강 상태(Primary Health Condition, PHC) 영역으로, 총 16개의 건강문제 중 지난 한 달간 나에게 영향을 준 일차적인 항목을 모두 선택한다. 두 번째는 업무장애 점수(Work Impairment Score, WIS)로 PHS에 의해 발생한 업무장애의 정도를 답변하는 것이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프리젠티즘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업무성과점수(Work Output Score, WOS)이다. 본 연구에서 업무는 학업(academic)에 해당한다. PHC가 학업 생산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학업의 성취율을 0~100% 사이의 점수로 기록한다(Work Output Score, WOS). 마지막은 PHC로 인해 발생한 학업결손시간(Hours of Absenteeism, HA)이다. 주당 0~40시간 중 본인이 직접 해당 결손 시간을 기록한다. 원 개발 당시 PSS 내 WIS의 Cronbach's α 값은 .90이었고(Matsushita et al., 2011),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23]에서 WIS의 Cronbach's α 값은 .7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4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700)

	Category	n(%)
Sex	Male	223(31.9)
	Female	477(68.1)
Degree	1	136(19.4)
	2	248(21.1)
	3	207(29.6)
	4	209(29.8)
	Total	639(91.3)
	Graduate	61(8.7)
Age (M=23.1)	<20	68(9.7)
	20~25	505(72.1)
	26~30	89(12.7)
	≥30	38(5.4)

2.2.2 학업소진 척도(MBI-SS)

학업소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aufeli 등 (200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학업소진 척도[32]를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33]를 사용하였다. 총 15개 문항으로 3개의 하위 영역(정서적 탈진, 냉담, 무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정서적 탈진 .85, 냉담 .78, 무능감 .7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정서적 탈진 .82, 냉담 .78, 무능감 .81, 전체 .87이었다.

2.2.3 Beck 우울 척도 2판(BDI-2)

우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eck, Steer, & Brown (1996)이 개발[34]하고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35]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그리고 생리적 영역을 포괄한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총 21개 문항의 자기 보고 검사이다. 각 문항은 0점에서 3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된다. 총점은 6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내 표준화 연구[35]에서 Cronbach's α 값은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95으로 나타났다.

2.2.4 상태 및 특성불안 척도(STAI)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Gonzalez-Reigosa, Martinez-Urrutia, Natalicio와 Natalicio (1971)가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STAI)[36]를 국내 표준화한 도구[37]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상태불안(현재 느끼는 상태적인 불안을 측정)과 특성불안(일상적으로 느끼는 지속적인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20문항씩 구성한다. 4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 α)는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상태불안이 .92, 특성불안이 .92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다중선택(PHC)이거나 단일문항(WOS, HA)으로 구성된 하위 지표를 제외하고, WIS 문항들에 대한 구성타당도는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

도를 확인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로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를 확인했다. 다음으로, K-PSS의 내적 신뢰도를 Cronbach's α 값을 통해 확인하고, 학업소진, 우울 및 불안 척도들과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도구의 측정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성별(남학생과 여학생), 연령(25세 이하와 26세 이상), 그리고 학년(1, 2학년과 3, 4학년)로 구분하여 모형을 비교하였다.

2.4 분석결과

2.4.1 K-PSS의 하위 지표별 결과

일차적인 건강문제(PHC)에 대한 조사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건강문제는 불면증(14.8%)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알레르기(14.6%)와 생리통 또는 생리불순(13.2%)가 많았다. 그 외에도 우울, 불안 또는 감정 장애(11.7%) 및 편두통 또는 만성 두통(10.7%)이 10% 이상의 빈도를 보였다. 반면, 심장 또는 순환문제(동맥질환, 고혈압, 협심증)와 간기능 장애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고 두 질환 모두 1% 미만이었다. 세부적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ults of Prevalent of Primary Health Condition (PHC) (N=700)

Health problem	n(%)
Allergies	198(14.6)
Arthritis or joint pain/stiffness	63(4.6)
Injury of limb	31(2.3)
Asthma	32(2.4)
Back or neck pain	131(9.6)
Breathing disorder	28(2.1)
Emotional disorder	159(11.7)
Insomnia	201(14.8)
Diabetes melitus	9(0.7)
Menstrual pain or irregular menstruation	179(13.2)
Disturbance of liver function	6(0.4)
Heart or circulatory problem	11(0.8)
Migraine or chronic headaches	145(10.7)
Stomach or bowel disorder	106(7.8)
Eating disorder	20(1.5)
Other	39(2.9)

다음으로, PHC로 인해 지난 4주 동안 경험한 업무(학업)손상점수(WIS)를 확인했다.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Results of Work Impairment Score (WIS), Work Output Score (WOS), Hours of absenteeism (HA) (N=700)

<i>Work Impairment Score (WIS)</i>	Item-Total Correlation	M(SD)
Were you able to finish hard academics (work)?	.592	2.32(0.82)
Did you find your attention wandering?	.718	3.12(0.89)
Were you able to focus on achieving academic (work) goals?	.682	2.48(0.78)
Did you feel energetic enough to complete your academics (work)?	.687	2.69(0.91)
Were the stresses of your academics (job) hard to handle?	.709	3.10(1.00)
Did you feel hopeless about finishing your academics (work)?	.737	2.72(1.06)
Were you able to focus on finding a solution when unexpected problems arose in your academics (work)?	.546	2.58(0.84)
Did you need to take breaks from your academics (work)?	.644	3.01(1.02)
Were you able to complete academic work with other people on shared tasks?	.558	2.23(0.89)
Were you tired because you lost sleep?	.574	3.29(1.07)
<i>Work Output Score (WOS)</i>		
Given your primary health condition, what percentage of your usual productivity level were you able to achieve academically over the last 4 weeks?		69.85(18.19)
<i>Hours of absenteeism (HA)</i>		
Because of your primary condition, how many academic hours (and/or work hours) did you miss in the past 4 weeks		11.17(12.38)

WIS의 평균 점수는 27.54점(표준편차 6.00)이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 피곤했습니까?’ 였으며(3.29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은 ‘다른 사람과 함께 수행하는 과제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까?’ 였다(2.23점).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는 .546~.737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4주간 PHC에 따른 학업성과 점수(WOS)는 100% 만점에 평균 69.85(표준편차 18.19)였으며, PHC에 따른 학업결손시간(HA)은 평균 11.17시간(표준편차 12.38)이었다.

2.4.2 K-PSS의 확인적 요인분석

K-PSS의 구성타당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절대 적합도 지수인 $\chi^2=25.253(p<.01)$, DF=20, CMIN/DF=2.267, RMSEA는 .43으로 나타났다. 증분적합도 지수인 CFI는 .988, 그리고

TLI는 .974로 나타났다. CMIN/DF는 3미만, RMSEA는 .08이하, CFI와 TLI는 .90 이상일 때 적합도가 우수하다고 수용된다는 기준[38]에 미루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모두 수용 기준을 충족하였다.

2.4.3 K-PSS의 신뢰도 검증

K-PSS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WIS 하위 10개 문항의 Cronbach’s α 값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Cronbach’s α 값은 .84로 내적 일관성의 기준으로 언급된 .80이상[39]으로 나타났다. 개별 문항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값의 변화 결과에서도 모든 문항의 결과가 문항 전체 값인 .84보다 낮았다.

2.4.4 K-PSS의 준거 타당도 검증

K-PSS의 준거 타당도는 동시타당도로 검증하였다.

Table 4. WIS model fit indices according to the total and gender, age, and grade (N=700)

		CMIN			CMIN/DF	RMSEA	CFI	TLI
		χ^2	DF	p				
Total	(n=700)	45.35		.001	2.27	.043	.988	.974
Sex	Male(n=223)	33.40		.030	1.67	.055	.982	.960
	Femail(n=477)	37.41		.010	1.87	.043	.987	.972
Age	≤25(n=573)	41.82	20	.003	2.09	.044	.988	.973
	≥26(n=127)	25.54		.181	1.28	.047	.983	.962
Grade	1, 2(n=384)	36.30		.014	1.82	.054	.982	.958
	3, 4(n=316)	25.57		.181	1.28	.026	.990	.996

Table 5.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validity of K-PSS (N=700)

	1	2	3	4	5	6	7
WIS	-						
WOS	-.536***	-					
HA	.456***	-.442***	-				
MBI-SS	.766***	-.486***	.427***	-			
BDI-II	.637***	-.506***	.390***	.586***	-		
State Anxiety	.734***	-.492***	.434***	.728***	.768***	-	
Trate Anxiety	.728***	-.505***	.447***	.758***	.747***	.890***	-
<i>M</i>	27.54	69.85	11.17	53.22	15.60	45.65	46.85
<i>SD</i>	6.00	18.19	12.38	13.17	11.77	11.40	11.45

*** $p < .001$

본 연구에서는 WIS, WOS, HA점수와 학업소진, 우울, 상태 및 특성불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동시타당도가 검증되었다. WIS가 높을수록, WOS가 낮을수록, HA가 높을수록 학업소진, 우울, 상태 및 특성불안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2.4.5 K-PSS의 측정 불변성 검증

K-PSS의 측정 불변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연구대상을 성별, 연령, 학년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모델의 지수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모든 구분 조건에서 우수한 적합도 지수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K-PSS가 대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안정적으로 프리젠티즘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임을 의미한다.

3. 결론

본 연구는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판 학생용 프리젠티즘 척도(K-PS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 대부분(632명, 90.3%)이 하나 이상의 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차적 건강문제(PHC) 유형으로는 불면증이 14.8%로 가장 많았고, 알레르기(14.6%)와 생리통 또는 생리불순(13.2%), 우울, 불안 또는 감정 장애(11.7%), 그리고 편두통 또는 만성 두통(10.7%)이 10% 이상의 학생들에게서 보고되었다. 건강문제로 인해 경험한 학업장애 점수는 평균 27.54점이었으며, 그 중에서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 피곤했습니까?'라는 문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문제 유형 중 불면증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PHC로 인해 지난 4주간 경험한 학업성과점수는 평균 69.85점, PHC로 인해 발생한 학업결손시간은 평균 11.17시간이었다.

K-PS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내적 신뢰도가 .84로 나타났으며, WIS의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r=.546\sim.737$)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타당도 검증에서도 WIS의 10개 문항은 절대 적합도 지수와 증분 적합도 지수 모두에서 우수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WIS, WOS, HA는 학업소진, 우울 및 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K-PSS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성별, 연령별, 학년별 구분 모델의 적합도 지수들도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나 K-PSS의 측정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K-PSS는 대학생들의 프리젠티즘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 가능성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국내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선행연구[23]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전체 대상 중 17.5%가 신체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생리통 또는 생리불순이 52.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편두통(34.4%) 또는 만성 두통과 우울, 불안과 같은 감정장애(33.8%)가 많았다. 신체증상을 보고한 학생의 수가 본 연구에서 더 많았으며, PHC의 항목 또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는 우선 표집의 특성으로 인한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간호대학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생리통과 관련된 건강문제의 보고가 가장 높았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 중에서 여성의 자료만을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도 생리통 또는 생리불순이 36.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을 통해 연구대상의 성별 특성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면증

과 알레르기가 선행연구와 달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건강문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집 시기의 차이다. 간호대학생들의 자료는 2017년 수집되었으며, 본 연구의 자료는 2022년 11월에 수집되었다. 2020년 3월 WHO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였으며, 우리나라 또한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에 따라 2020년 3월 개강 이후 대부분 대학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했다[40]. 이후에도 대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연동된 수업 방식을 결정해왔다. 최근에 와서야 전면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으나 지난 2년여 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대학생들의 생활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는 신체 활동량을 줄여들게 하고,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악화시켰다[41]. 감염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 그리고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42]. 줄어든 신체활동은 낮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되고, 긍정정서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저해시킨다고 알려져 있다[43,44]. 따라서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더 높은 신체건강 문제를 호소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학생의 프리젠테즘은 학업소진, 우울, 상태 및 특성 불안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PSS의 하위 지표 세 가지 모두 동시 타당도 검정을 위해 비교된 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높은 WIS는 높은 학업소진, 우울, 상태 및 특성불안과 관련이 있었다. 소진의 현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눈 떨림, 만성피로, 어지럼증, 식욕부진 등과 같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불면증, 우울, 무기력감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도 나타난다[45]. 프리젠테즘과 소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두 변인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46,47],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소진을 유발하고, 소진은 프리젠테즘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된다[48]. 또한 우울과 불안은 프리젠테즘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이기도 하다[30,31,49,50]. 본 연구의 결과 또한 대학생들의 직무인 학업에서의 소진과 우울, 불안이 프리젠테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요한데, 대학생들 중 경험하는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울과 불안이 프리젠테즘과 학업소진과 관련된다는 결과는 대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해서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학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대학생 시기는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되고[20], 지속적인 경쟁 및 성과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시기이다[21]. 그 중요성만큼 장기적 건강증진을 위한 요인으로 정신·신체 건강이해력(Health Literacy)이 중요하다. 이 건강에 대한 이해력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특히 정신보건 분야에서 정신건강이해력(Mental Health Literacy)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이해력은 자신이나 타인의 문제를 인지하고 초기에 치료적 개입을 요청(help seeking behavior)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51]. 즉, '질병이 존재하지만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위·중증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해 결국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52]. 학업 스트레스부터 시작된 정서문제와 소진, 그리고 프리젠테즘의 관련성을 생각할 때 대학생들의 건강이해력은 예방의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는 대학 중심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구성원들의 스트레스와 소진에 대한 설명 모델인 직무요구-자원 모형에 따르면[53], 자율성, 사회적 지원, 통제적 대처, 의사결정 재량권 등의 직무 자원이 부족하거나 업무 과부하나 역할 갈등과 같은 직무 요구가 지나칠 때, 직무 소진과 그로인한 질병, 이직, 결근 등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고 가정한다. 직무 요구는 구성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노력을 요구해 생리적, 심리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과부하된 직무 요구는 구성원을 지치게 만들고 에너지 회복에 어려움을 겪게 해 직무 소진을 거쳐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54]. 이 과정을 완충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직무 자원이다.

직무 자원은 직무 소진을 야기하는 직무 요구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고, 작업 열의를 증가시키며, 궁극적으로 프리젠테즘으로 인한 직무 손실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55].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직무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며, 의사결정에 자율성을 가지며, 긍정적 사회적 지원 체계를 보유한 구성원은 높은 직무 요구로 인한 직무 소진을 완화시키고, 높은 직무 수준을 도전으로 인식해 경험과 학습이 이루어져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작업 열의를 상승시킨다[56,57].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업 열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관리[58], 지연행동[59], 진로지도 프로그램[60]을 비롯해 다양한 수업이나 과제 참여에 대한 동기를 증진시키고 재학생 중심의 지지집단을 형성하

는 등[61]의 개입 전략이 중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K-PSS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몇 가지 제한점도 있다. 우선, 700명의 대학생 자료를 수집했으나 지방 일부 대학에 국한된 표집이 진행되었다. 또한 대학 내에서도 전공 및 학위과정에 따라 성과에 대한 압력 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구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연구 목적 때문이지만 향후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학위과정과 전공 영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 문제, 그리고 소진과 프리젠티즘에 대한 관련성 연구는 개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Enrollment and entrance rate, c2022[cited 2022 August 1] 2023.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assessed Mar. 01. 2023)
- [2] E. H. Erikson,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Vol.4, No.1, pp.56-121, 1956. DOI: <https://doi.org/10.1177/000306515600400104>
- [3] M. O. Kim, Y. S.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ing Behavior and Jobs Seeking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Moder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11, pp.69-90. 2012.
- [4] K. S. Shin, I. J. Cho, "The Effects of Job-seeking Skill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Job-seeking Stress in College Student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29, No.3, pp.143-160, 2013.
- [5] M. S. Yoon, H.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Job Prepar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Problem Drink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3, pp.109-137, 2012.
- [6] S. H. Kim, "Moderating Effects of Reasons for Living and Impuls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4, No.3, pp.103-113, 2016.
- [7] S. Lee, C. Cho, Y. Lee, J. Lee, J. Shin, D. Jung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tendency of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ents: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degree course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26, No.2, pp.1-18, 2019. DOI: <https://doi.org/10.35734/karp.2019.26.2.001>
- [8] Y. S. Kim, S. H. Yu,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Mental health and life stress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and dental hygiene)", *Journal of Technologic Dentistry*, Vol.35, No.4, pp.405-414, 2013. DOI: <https://doi.org/10.14347/kadt.2013.35.4.405>
- [9] E. K. Byun, S. J. Yoon, K. H. Kim, "The Factors Influencing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3, No.3, pp.146-153, 2014. DOI: <https://doi.org/10.5807/kjohn.2014.23.3.146>
- [10] Y. K. Yang, K. S. Han, M. H. Bae, S. 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2, No.1, pp.23-33, 2014.
- [11] M. Matsushita, H. Adachi, M. Arakida, I. Namura, Y. Takahashi, M. Miyata, T. Kumano-go, S. Yamamura, Y. Shigedo, N. Suganuma, A. Mikami, T. MoriYama, & Y. Sugita, "Presenteeism in college student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resenteeism Scale for Students", *Quality of Life Research*, Vol.20, No.3, pp.439-446, 2011. DOI: <https://doi.org/10.1007/s11136-010-9763-9>
- [12] M. J. Kwon, & E. S. Choi, "Presenteeism in clinical nurses: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6, No.3, pp.160-171, 2017. DOI: <https://doi.org/10.5807/kjohn.2017.26.3.160>
- [13] D. M. Lack, "Presenteeism revisited: A comprehensive review", *Americ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Journal*, Vol.59, No.2, pp.77-89, 2011. DOI: <https://doi.org/10.3928/08910162-20110126-01>
- [14] G. W. Canfield, "Presenteeism-A constructive view", *Ind Med Surg*, Vol.24, No.9, pp.417-418, 1955.
- [15] G. Johns, "Presenteeism in the workplace: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31, No.4, pp.519-542, 2010. DOI: <https://doi.org/10.1002/job.630>
- [16] R. S.Turpin, R. J. Ozminkowski, C. E. Sharda, J. J. Collins, M. L. Berger, G. M. Billotti, C. M. Baase, M. J. Olson, & S. Nichols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tanford Presenteeism Scale",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46, No.11, pp.1123-1133, 2004.
- [17] M. H.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Presenteeism between Korea, USA. and Japan",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Vol.21, No.4, pp.153-172, 2014.
- [18] P. Hemp, "Presenteeism: at work-but out of it", *Harvard Business Review*, Vol.82, No.10, pp.49-58, 2004.
- [19] I. Bierla, B. Huver, & S. Richard, "Presenteeism at work: the influence of manag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Studies*, Vol.3, No.2, pp.97-107, 2011.

- [20] A. N. Hyun, S. J. Yo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college freshmen: mediating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2, pp.403-428, 2012.
DOI: <https://doi.org/10.1186/s12913-020-05593-9>
- [21] K. K. Asberg, C. Bowers, K. Renk, & C. McKinney,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o the study of stres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emerging adult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Vol.39, No.4, pp.481-501, 2008.
DOI: <https://doi.org/10.1007/s10578-008-0102-0>
- [22] E. H. Lee, "Lif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with Structural Equation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9, No.1, pp.25-48, 2004.
- [23] J. H. Kim, J. Je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presenteeism scale for students(K-PS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Muscle Joint Health*, Vol.26, No.3, pp.281-289, 2004.
DOI: <https://doi.org/10.5953/JMJH.2019.26.3.281>
- [24] J. H. Yang, J. H. You "The Effect of Job Burnout on Presenteeism of the Airline Cabin Crew: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worker Social Support", *Tourism & Leisure Research*, Vol.31, No.11, pp.363-380, 2019.
DOI: <https://doi.org/10.31336/JTLR.2019.11.31.11.363>
- [25] W. Jeong, Y. K. Kim, S. S. Oh, J. H. Yoon, & E. C. Park, "Association between presenteeism/absenteeism and well-being among Korean worker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62, No.8, pp.574-580, 2020.
DOI: <https://doi.org/10.1097/JOM.0000000000001901>
- [26] M. Kivimäki, J. Head, J. E. Ferrie, H. Hemingway, M. J. Shipley, J. Vahtera, & M. G. Marmot, "Working while ill as a risk factor for serious coronary events: the Whitehall II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95, No.1, pp.98-102, 2005.
DOI: <https://doi.org/10.2105/AJPH.2003.035873>
- [27] E. Aboagye, C. Björklund, K. Gustafsson, J. Hagberg, G. Aronsson, S. Marklund, C. Leineweber, & G. Bergström, G. "Exhaustion and impaired work performance in the workplace: associations with presenteeism and absenteeism".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61, No.11, pp.e438-e444, 2019.
DOI: <https://doi.org/10.1097/JOM.0000000000001701>
- [28] A. I. Ferreira, & L. F. Martinez, "Presenteeism and burnout among teachers in public and private Portuguese elementary school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23, No.20 pp.4380-4390, 2012.
DOI: <https://doi.org/10.1080/09585192.2012.667435>
- [29] P. Pei, G. Lin, G. Li, Y. Zhu, & X. Xi, "The association between doctors' presenteeism and job burnout: a cross-sectional survey study in China",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Vol.20, No.1, pp.1-7, 2020.
DOI: <https://doi.org/10.1186/s12913-020-05593-9>
- [30] C. Fritz, & S. Sonnentag, "Recovery, health, and job performance: effects of weekend experience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10, No.3, pp.187-199, 2005.
DOI: <https://doi.org/10.1037/1076-8998.10.3.187>
- [31] L. Lu, H. Y. Lin, & C. L. Cooper, "Unhealthy and present: motives and consequences of the act of presenteeism among Taiwanese employee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18, No.4, pp.406-416, 2013.
DOI: <https://doi.org/10.1037/a0034331>
- [32] W. B. Schaufeli, I. M. Martinez, A. M. Pinto, M. Salanova, & A. B. Bakker,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33, No.4, pp.464-481, 2002.
- [33] H. Shin, A. Puig, J. Lee, J. H. Lee, & S. M. Lee, "Cultural validation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for Korean student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Vol.12, No.4, pp.633-639, 2011.
DOI: <https://doi.org/10.1007/s12564-011-9164-y>
- [34] A. T. Beck, R. A. Steer, & G. K. Brown, "Manual for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Vol.1, No.82, pp.1010-1037, 1996.
- [35] H. M. Sung, J. B. Kim, Y. N. Park, D. S. Bai, S. H. Lee, & H. N. Ahn, "A Study on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II(BDI-I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Vol.14, No.2, pp.201-212, 2008.
- [36] C. D. Spielberger, F. Gonzalez-Reigosa, A. Martinez-Urrutia, L. F. Natalicio, & D. S. Natalicio, S.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Revista Interamericana de Psicología/Inter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5, No.3/4, pp.145-158, 1971.
DOI: <https://doi.org/10.30849/rip/ijp.v5i3%20%204.620>
- [37] D. W. Hahn, C. H. Lee, & K. K. Chon, "Korean Adaptation of Spielberger's STAI (K-STAI)",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 No.1, pp.1-14, 1996.
- [38] S. H. Hong,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19, No.1, pp.161-177, 2000.
- [39] S. Oh, "Score Reliability Estimation of Questionnaires using Cronbach's Alpha",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15, pp.113-121, 2003.
- [40]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y Presidents "Scheduled date for face-to-face classes" c2020[cited 2020 April 28]
http://kapup.org/sub/sub02_02.php?boardid=notice&mode=view&idx=41&sk=&sw=&offset=0&category=&gPage (assessed Mar. 01. 2023)

- [41] E. J. Kim, & H. W. Kang, "COVID-19 and Leisure Life Change: Focusing on the Results of the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in 2020".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Vol.45, No.4 pp.1-10, 2021.
DOI: <http://dx.doi.org/10.26446/kilrp.2021.12.45.4.1>
- [42] D. H. Lee, Y. J. Kim, D. H. Lee, H. H. Hwang, S. K. Nam, J. Y. Kim, "The Influence of Public Fear, and Psycho-social Experience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Pandemic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32, No.4 pp.2119-2156, 2020.
- [43] B. S. Na, W. K. Kim, M. S. Park, & W. K. Kim, "Difference in health promoting behavior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19, No.2 pp.969-977, 2010.
- [44] H. Y. Ahn, J. H. Ahn, Y. S. Kim, & S. H. Kwon, "The Effect of Physical Activities on the Mood State and Sleep : Analysis Using Data from Wearable Devices", *Korean Journal of Sports Studies*, Vol.57, No.6 pp.87-99, 2018.
DOI: <http://dx.doi.org/10.23949/kipe.2018.11.57.6.7>
- [45] Y. Sim, & J. T. Kim, "Effect of Job Insecurity of Disability Sports Instructor on Burnout Syndrome",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Vol.26, No.2 pp.93-104, 2018.
- [46] M. S. Choi, & S. E. Jeong, "The Effect of Job Burnout and Work Engagement on Presenteeism", *Creation and Innovation*, Vol.9, No.3 pp.63-93, 2016.
- [47] W. F. Stewart, J. A. Ricci, E. Chee, D. Morganstein, & R. Lipton, "Lost productive time and cost due to common pain conditions in the US workforce", *Jama*, Vol.290, No.18 pp.2443-2454, 2003.
DOI: <http://dx.doi.org/10.1001/jama.290.18.2443>
- [48] W. B. Schaufeli, & A. B. Bakker,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rnout and engagement: A multisample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Vol.25, No.3 pp.293-315, 2004.
DOI: <https://doi.org/10.1002/job.248>
- [49] J. T. Baek, & Y. C. Cho,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Labour, Depressive Symptoms and Presenteeism among Counselors in Call Cent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6 pp.4086-4097,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6.4086>
- [50] K. Sanderson, E. Tilse, J. Nicholson, B. Oldenburg, & N. Graves, "Which presenteeism measures are more sensitive to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101, No.1-3 pp.65-74, 2007.
DOI: <https://doi.org/10.1016/j.jad.2006.10.024>
- [51] R. Parker, & S. C. Ratzan, "Health Literacy: A Second Decade of Distinction for American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Vol.15, No.2 pp.20-33, 2007.
DOI: <https://doi.org/10.1080/10810730.2010.501094>
- [52] A. F. Jorm, "Mental health literacy: Public knowledge and beliefs about mental disorder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117, No.5 pp.396-401, 2000.
DOI: <https://doi.org/10.1192/bjp.177.5.396>
- [53] C. Maslach, W. B. Schaufeli, & M. P. Leiter,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52, pp.397-422, 2001.
DOI: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2.1.397>
- [54] E. Demerouti, A. B. Bakker, F. Nachreiner, & W. B. Schaufeli, "The job demands resources model of burnou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6, No.3 pp.499-512, 2001.
DOI: <https://doi.org/10.1037/0021-9010.86.3.499>
- [55] M. S. Choi & S. E. Jeong, "The Effect of Job Burnout and Work Engagement on Presenteeism", *Journa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Vol.9, No.3 pp.63-93, 2016.
DOI: <https://doi.org/10.22834/PDS.2016.9.3.63>
- [56] W. B. Schaufeli, & A. B. Bakker,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rnout and engagement: a multi-sample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25, No.3 pp.293-315, 2004.
DOI: <https://doi.org/10.1002/job.248>
- [57] M. Van der Doef, & S. Maes, "The job demand-control (-support) mode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view of 20 years of empirical research", *Work & Stress*, Vol.13, No.2, pp.87-114, 1999.
DOI: <https://doi.org/10.1080/026783799296084>
- [58] S. J. Joh, "The Influence of Time management education on Self-efficacy, Time management behavi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8, No.6 pp.755-781, 2014.
- [59] G. P. Cho, & E. Y. Jang, "The Differences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by Their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Procrastin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5, No.2 pp.1-20, 2012.
- [60] B. Kim, & T. W. Chung,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Career Curriculum for Junior Colleg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3, No.4 pp.113-131, 2010.
- [61] S. B. You, & H. Yoon,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and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9, No.3 pp.405-421, 2014.
DOI: <https://dx.doi.org/10.13049/kfwa.2014.19.3.405>

이 상 일(Sangil Lee)

[정회원]



- 2011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6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문학박사)
- 2018년 4월 ~ 현재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원

〈관심분야〉

임상심리학, 정신건강, 디지털 헬스케어